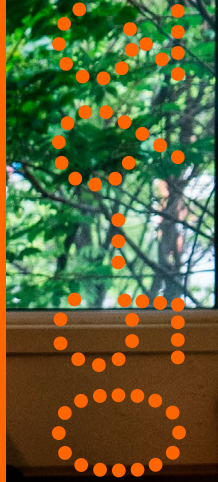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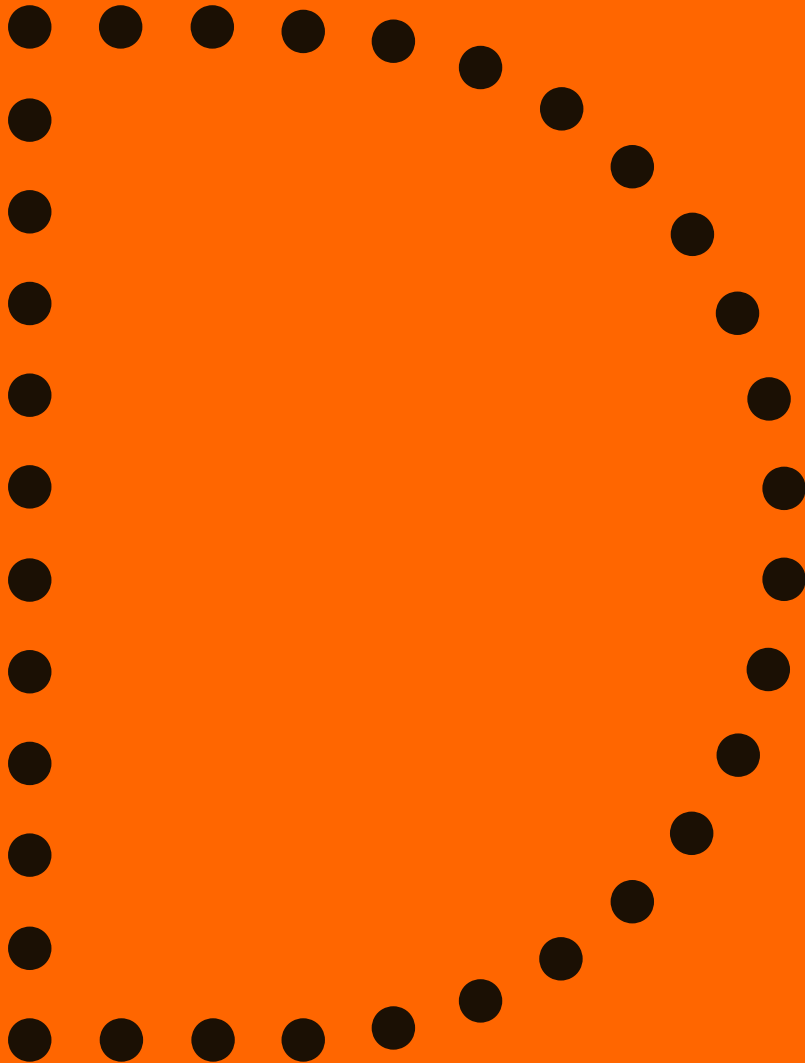


DSPD

DIDP

DAEJEON DESIGN HOTSPOT

대전디자인핫스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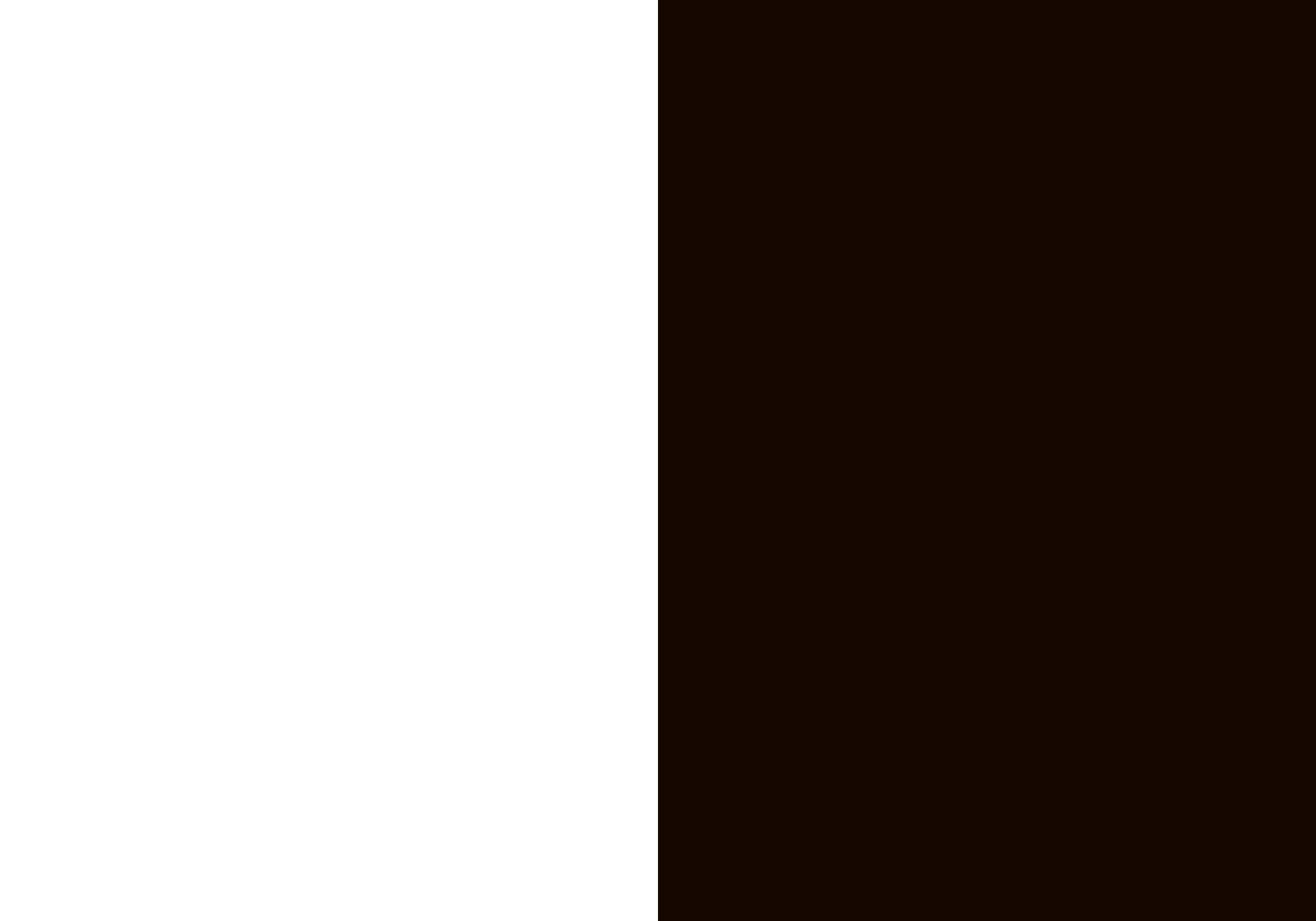


2025



DIDP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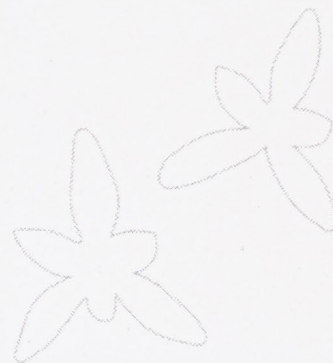
'한란'이라는 야생화의 실루엣을 비정형적
op. peek'가 여러분에게 발견하기 힘든
'을 지닌 '의외의 발견' 이 되길 희망합니다.

ep, you take a peek.

서 우리만의 취향을 제안할 테니,
슬머시 들여다봐 주세요.

hop. peek

lifestyle
select shop



.shop. peek.

클럽은
원편입니다 휴무 없음

SELF-PUBLISHING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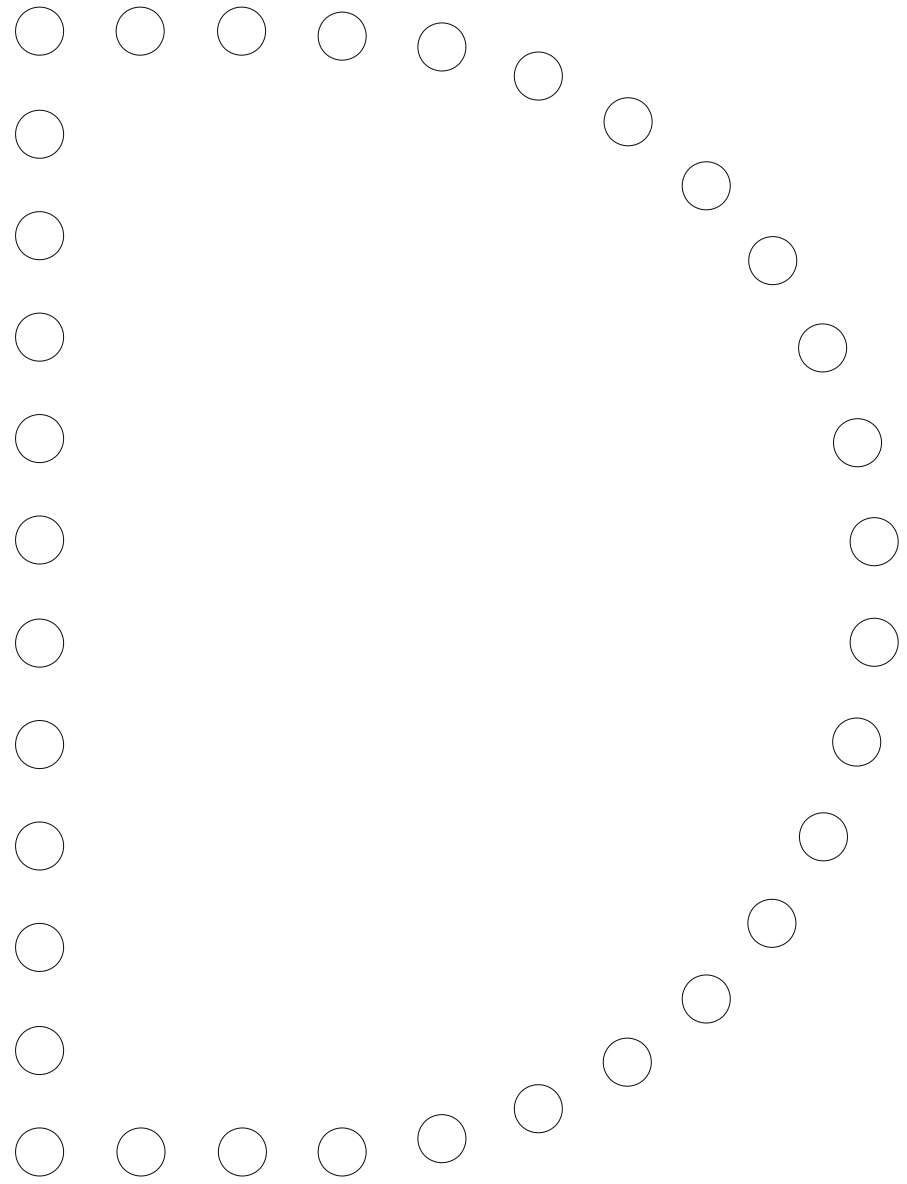
도시여행자







대전디자인핫스팟 아카이브
DAEJEON DESIGN HOTSPOT ARCHIVE



대전은 과학과 기술의 중심지이자, 지리적 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융합된 곳입니다. 사람과 문화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지닌 도시 대전에서, 시민과 방문객이 도시 곳곳에 숨겨진 디자인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대전디자인핫스팟’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전의 다섯 개 구(區)를 대표할 만한 35개의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각 장소에 담긴 역사적 배경, 문화적 의미, 디자인적 가치를 깊이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추천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전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들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거진 『대전디자인핫스팟』은 그 결과물을 집대성한 아카이브입니다.

대전이 지닌 디자인적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들을 기록하고, 각 장소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도시적 가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곳의 ‘디자인스팟’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점이자, 시민의 삶과 상상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 장소들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도시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는 디자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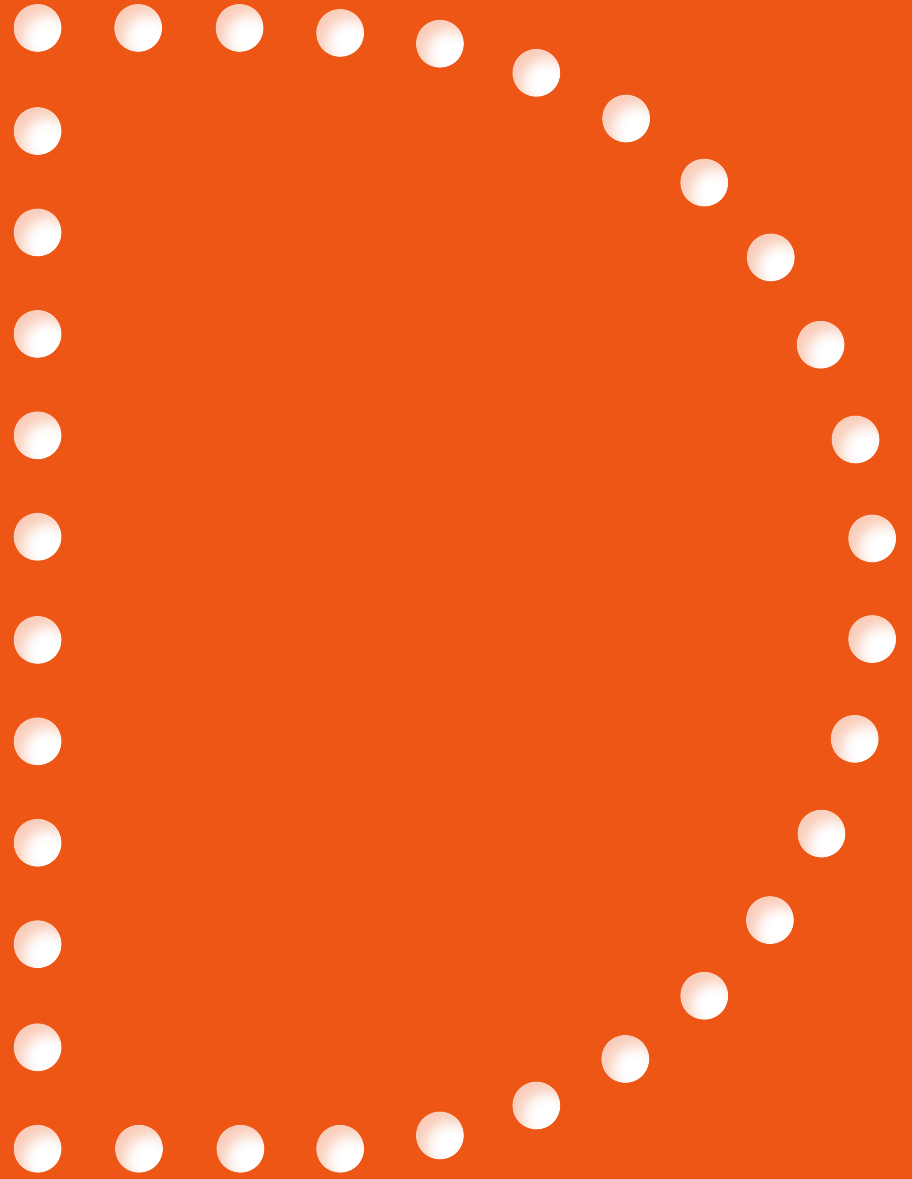
일러두기

-1~35번 대전디자인핫스팟(Daejeon Design Hotspot)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장소의 운영시간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실제 방문 시, 운영시간이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장소의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렐류드샵

The Prelude Shop

숍피크

SHOP PEEK

처치앤댄스홀

CHURCH AND DANCE HALL

홍익커피바

HONGIK COFFEE BAR

부기

BOOGIE

사케바 쿠로자루

SAKE BAR KUROZARU

영감의 공간

‘영감(靈感)’은 언제나 뜻밖의 틈새에서 스며든다.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준비하고, 특별한 오브제가 진열된 장소, 적당한 조도에 커피 향을 품은 가구가 매력적인 공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때로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시의 적절한 책들을 소개하는 큐레이션 서가가 마련된 서점, 이국적인 인상을 주는 바····, 일상의 리듬에서 포착하는 ‘낯섦’은 ‘기분 좋은 자극’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영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공간들은 모두 ‘대전’이라는 지역 안에서 각자 독립적이고 고유한 감각을 품으며, 방문자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이들의 고유함은 각각 하나의 좌표가 되어 대전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지층을 더 촘촘하게 만들며 누군가에게는 이 지역에 ‘꼭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영감의 공간」 파트에서는 대전에서 각자의 고유함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낯섦’을 제안하는 공간들을 소개한다. 대전에서 만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들의 ‘독특한 취향’을 따라가 보자.

INSPIRATION



더
프렐류드
샵

036

일기장을 새롭게 채워줄 감각의 향연, 더 프렐류드 샵



© 프렐류드샵의 오픈 때부터 함께한 지우개 전시 테이블. 프렐류드에 입장하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지우개들이 있는 테이블이 방문객을 반긴다.

웨이팅이 존재하는 소품 숍을 방문해 본 적이 있을까? 익숙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발견을 하고 싶다면 선화동 'The Prelude Shop'을 방문해 보자. 기다림 끝에 들어간 그곳에선 당신을 기다려온 특별한 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매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컬러별로 정렬된 지우개들이 전시된 테이블이다. 이 독특한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상품 진열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공간을 장식한다. 지우개 테이블뿐만 아니라 The Prelude Shop은 문구류, 생활 소품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그 하나하나가 독창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제품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한다.

세련된 문구용품들은 단순 만족감을 넘어 일상의 새로운 감각을 꽃피우게 한다. 오늘의 새로운 감각을 일기장에 적어 보는 것은 어떨까?



036 더 프렐류드 샵

장소 대전 중구 중앙로129번길 30 1층 The Prelude Shop

운영시간 월 - 금 12:00 - 19:00, 토 - 일 11:00 - 20:00

웹사이트 prelustudio.co.kr

비고 인스타그램 @prelustudio



- ④ 프렐류드 운영 초기, 프렐류드를 알려지게 해준 오리지널 상품 'P-KIT 다이어리' (사진 출처, 프렐류드 스튜디오 웹사이트)
- ④ 다양한 상품이 함께 진열된 스토어 내부.
- ④ 스토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조명, 가구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 ④ 오프라인 스토어 오픈 당시부터 매장 전면에 설치되어 있던 네온사인.



당신의 설렘을 이 그릇에 담습니다, 솽피크

037

솽피크

자칫 지나치기 쉬운 편집숍 솽피크의 문을 두드려보자. 밖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아기자기하고 유니크한 소품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발길을 묶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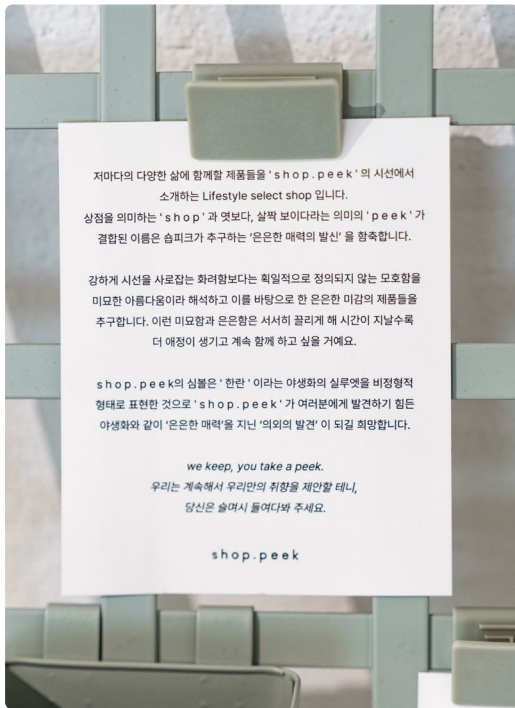
특히나 흰색 중심의 톤앤 매너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돈된 내부 공간은 소소한 발견을 하기에 편안하다.

공간과 함께 시선을 끄는 것은 단연 제작 판매 제품들이다. 특히 그릇을 중심으로 한 소품과 생활용품들은 세심하게 선별된 감각이 돋보이며,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하여금 구매욕을 자극한다.

하나하나의 제품과 오브제에서 솽피크만의 취향과 스타일이 느껴지며, 공간을 거니는 것 자체가 소소한 영감의 시간이 된다. 이곳에서 발견한 미감은 우리의 공간에 자리 잡아 그 존재감을 새롭게 뽐낼 것이다.

☺ 화이트와 우드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매장 내부.





Ⓢ
 '살짝 보이다'라는 의미의
 'peek'와 상점을 의미하는
 'shop'이 결합된 가게명의 의미.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팔고
 있는데, 어느 소품샵에서 보기
 어려운 브랜드의 제품도 있어
 마니아들의 방문이 잦다.
 ⓈⓈ
 가게 한편에는 공방 또는 작업실로
 운영되는 공간이 있다.



037 슝피크

장소 대전 중구 중앙로112번길 37 2층 오른쪽 하얀 문

운영시간 월 - 토 12:00 - 19:30, 일 12:00 - 18:00

웹사이트 smartstore.naver.com/shop_peek

비고 인스타그램 @shop.peek_






038

처치앤
댄스홀



**문화의
그루브를 느껴라,
처치앤댄스홀**

중구 대흥동 골목 한편에 위치한 처치앤댄스홀은 평소 잔잔한 여유가 느껴지는 카페다. 하지만 해가 넘어간 저녁, 음악을 연주하는 개성 있는 뮤지션,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관객들과 함께 이곳은 감각적인 공연으로 가득 찬다.



① 김산돌 「탕유관동록」 공연 현장 (사진 출처: 처치앤댄스홀 인스타그램)

처치앤댄스홀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벽면을 가득 메운 바이닐(vinyl)이다. 음악의 물성을 그대로 품은 인테리어는 이곳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조차 리듬과 결을 공유하게 만든다. 곳곳에 자리한 키 큰 식물들은 높은 층고와 어우러져 공간에 개방감을 더한다. 자연과 음악, 그리고 여유가 한데 어우러진 풍경은 도시 안에서 드물게 경험할 수 있는 장면이다.

처치앤댄스홀의 특별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은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시킨다.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어울리며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열린 무대, 그 안에서 카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적 플랫폼이 된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을 넘어, 감각적인 디자인과 문화적 실험이 공존하는 무대에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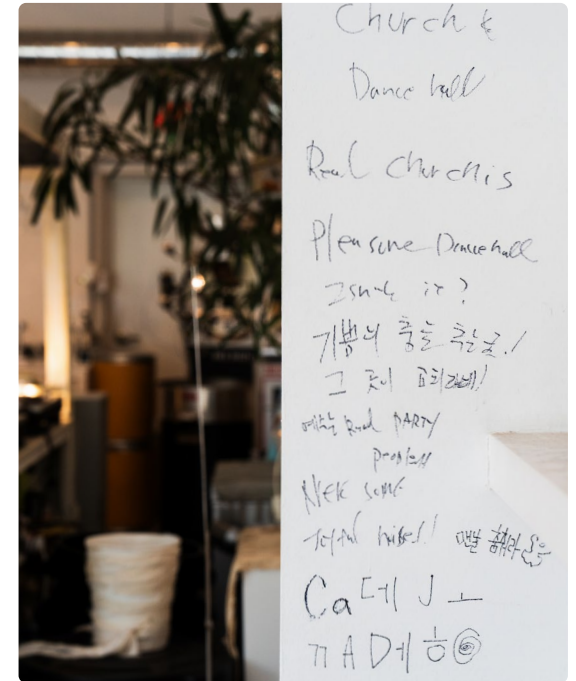


- ㉠ 매장 내부의 LP 기기.
- ㉡ 추다혜차지스 「소수민족」 클럽투어 공연 현장.
(사진 출처: 처치앤댄스홀 인스타그램)
- ㉢ 처치앤댄스홀 시그니처 베이커리 메뉴.



038 처치앤댄스홀

장소 대전 중구 대흥로139번길 38
 운영시간 화 - 금 11:00 - 18:00, 토 - 일 11:00 - 22: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웹사이트 -
 비고 인스타그램 @churchanddancehall



㉣ 벽면에 남아있는 공연의 흔적.

㉤ 처치앤댄스홀 매장 내부. 매장 한 쪽에는 가게 사장님의 LP 컬렉션이 모여 있다.





커피와 함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곳, 홍익커피바

탄방동의 번잡한 대로변을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서면, 문득 발걸음을 붙잡는 카페 하나가 눈에 띈다. 낮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저녁이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는 이곳, 마이크로 로스터리 홍익커피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아늑하게 맞아준다. 내부는 커피머신을 비롯해 로스터리 관련 전문 도구와 소품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 커피에 대한 진심과 전문성도 느껴진다. 특히 홍익커피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스코트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요지'는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더한다.



① 홍익커피바의 마스코트,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요지.

이곳의 특별함은 '바(Bar)'에서 더욱 여실히 느껴진다. 커피가 만들어지는 드립 과정은 그 우아함을 시선을 뺏기고, 진한 향에 다시 한번 매료된다. 바리스타의 맞은편에서 커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다. 아직 바 문화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착석을 권장하는 바이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 자꾸 떠오르는 디저트 등 카페를 방문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홍익커피바는 그런 방문객들의 사연에 어울리는 좋은 커피를 곁들여줄 것이다.

039

홍익
커피바



31

영감의 공간 Inspiration SPOT



039 홍익커피바

장소 대전 서구 탄방로 78 1층

운영시간 화,목,금,토 12:00-23:00, 수 12:00-21:00, 일 13:00-19:00, 월 정기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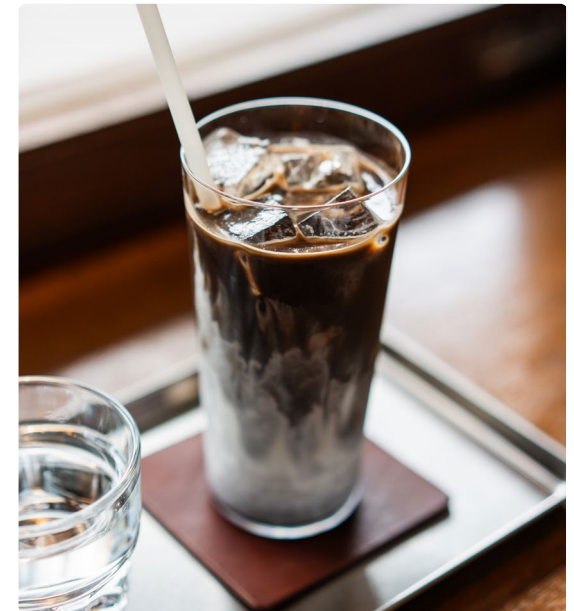
웹사이트 -

비고 인스타그램 @hongik_coffeebar




- ① 우드 톤으로 따뜻하게 구성된 홍익커피바의 내부 인테리어. 공간에 들어가지만 해도 커피 향이 느껴지는 듯 하다. 공간 한 쪽에는 로스터리 기계가 있다.
- ② 홍익커피바에서 매일 직접 볶아서 만드는 원두.
- ③ 다양한 풍미의 원두를 직접 고르고, 사장님이 손수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곳의 백미.

④ 매장에서 팔고 있는 음료.



부기

040



대전의 중심에서 아프리카를 외치다, 부기

탄방동 골목 안쪽, 대전의 중심에서 느껴지는 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색적인 아프리카의 뉘앙스가 풍겨 오는 공간이 있다. 다른 공간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풍기는 이곳은 브랜드 디렉터가 직접 운영하며 공간 기획부터 콘셉트까지 섬세하게 다듬어낸 카페 부기(BOOGIE)다.

부기의 첫인상은 분명하다. 아프리카an 무드를 기반으로 한 이곳은 대담한 디자인 감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벽 한쪽을 채우는 자유로운 패턴에서는 에스닉한 정취가 묻어나며, 짙은 테라코타와 따뜻한 오렌지색 공간 구성은 자연의 팔레트를 옮겨놓은 듯하다. 세심하게 배치된 가구와 오브제들까지 더해져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그 안의 에너지는 잠시 앉아 커피를 마시는 행위조차 특별한 체험처럼 다가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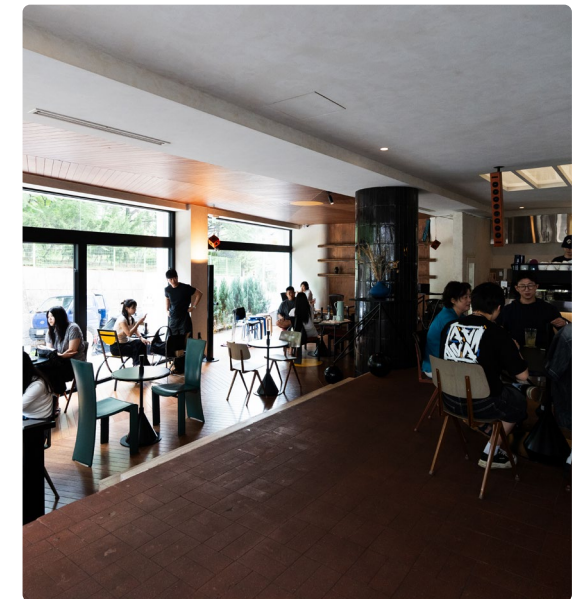
무엇보다 부기는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트렌드 공간이 아니다. 디자인적 완성도 높은 기획이 바탕이 되었기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공간의 힘이 느껴진다. 디렉터의 취향과 시선이 온전히 녹아든 카페는 머무는 이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선물을 건넨다.



① 부기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열대식물들

② 부기의 무드를 담은 독특한 로고타입.

③ 주말에 사람들로 북적한 부기의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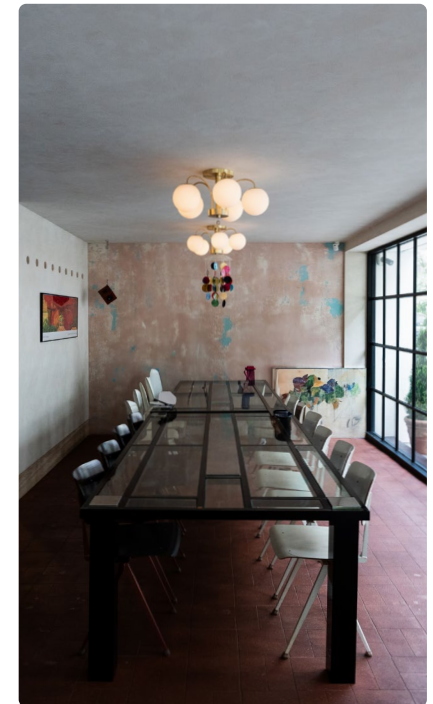
040 부기

장소 대전 서구 문정로112번길 54 1층

운영시간 매일 12:00 - 22:00, 21:30 라스트오더

웹사이트 -

비고 인스타그램 @boogieboogieboogieboogie





사케 한 잔의 새로운 경험, 사케바 쿠로자루

공동 대학가의 익숙한 카페와 주점들 사이에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사케바 쿠로자루다. 대전에서 흔치 않은 사케 전문 공간으로, 이름처럼 사케를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무드를 선사한다.

‘사케바’라는 테마에 걸맞게 공간은 세심하게 기획되고 완성도 높게 꾸며졌다. 전통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균형을 이루며, 잔잔한 조명과 절제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사케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케라는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사케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열린 공간이다.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부담 없이 한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 덕분에 사케바 쿠로자루는 ‘전문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지닌, 드문 매력을 가진 사케바로 자리매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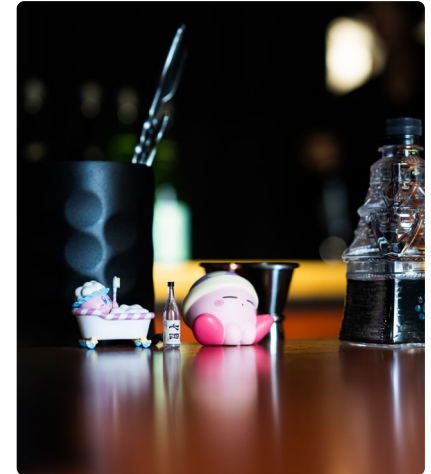
㉔㉕

사케바 쿠로자루는 대표가 직접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이자 다짜 형태의 구조가 특징이다.





041 사케바 쿠로자루	
장소	대전 유성구 대학로163번길 43 지상1층
운영시간	매일 19:00 - 03:00, 01:30 라스트오더
웹사이트	-
비고	인스타그램 @sakebar_kurozaru



영감의 공간, 부기

interview 손태규

부기 대표

탄방동 한가운데 자리한 카페 ‘부기 (BOOGIE)’는 대전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무드의 공간이다. ‘아프리카 감성’이라는 표현으로 회자되지만, 그 이면에는 진지한 리서치와 팀의 취향이 켜켜이 쌓여 있다. 공간의 이름처럼 강렬하지만 경쾌한 리듬으로, 탄방동이라는 조용한 동네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기를 만났다.

부기라는 독특한 이름이 가진 공간만의 지향점도 있을 것 같다. 이름으로부터 시작해 부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탄방동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를 듣고 싶다.

‘아프리카’ 무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다소 진부하지만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재미있는 이름이 나올 것 같아 ‘아프리카’를 키워드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부기 (Boogie)’—강하고 빠른 리듬의 블루스, 혹은 빠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탄방동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단순하다. 어렸을 때 내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부기라는 공간이 다소 정적인 탄방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이질적인 존재감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이번 핫스팟 프로젝트에서 부기는 ‘영감의 공간’으로 소개된다. 운영자에게 ‘영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또 방문객들 사이에서 부기는 ‘아프리카 감성’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회자된다. 이국적인 재료나 색, 오브제의 선택에는 어떤 의도나 리서치가 담겨 있었는가?

‘영감의 공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에게 영감이란 불현듯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간을 준비하기에 앞서 방향성을 정하고 끊임없는 디깅과 내부 회의를 통해 영감을 고착화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영감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바람처럼 왔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물처럼 흘러가는 트렌드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동경하고 좋아했던 공간과 무드, 그리고 디깅을 통해 쌓아놓은 레퍼런스를 나열했을 때, 우리의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아프리카라는 생소하고 미지의 대륙 앞에서 멈춰섰다.

우리가 정한 ‘아프리카 속 프렌치 카페’라는 콘셉트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너무 컨셉추얼하지 않게 접근하고자

했다. 공간의 구역마다 ‘아프리카 한 스푼’만 넣어, 이용자들이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카페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게 쌓아온 영감과 상상을 인테리어 시공사와 협력해 풀어나가며, 나무의 결, 타일의 색, 조명의 조도, 벽면의 질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강렬하고 원초적인 컬러감과 프렌치 카페의 무드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었다.

오브제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브제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부기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브랜드를 설계·유지하는 디자이너와 함께 부기를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공간, 그래픽, 사인, 컬러를 비롯한 많은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 공간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나? 또, 부기를 만들 때 유독 집착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손님들이 슬리피타운을 방문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리뷰나 블로그를 통해 많이 관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손님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편안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맛은 기본이고, 서비스나 공간의 온도와 조도, 우리의 태도까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기를 단순히 무언가를 파는 곳이라기보다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슬리피타운의 메뉴책도 같은 마음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메뉴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손님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였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쌓여 손님들이 우리를 ‘말보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부기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집착 덩어리가 된 것이 메뉴책이다.

‘부기치노’, ‘자허토르레’ 등 부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창적인 메뉴와 공간의 오브제에도 고유한 조형 언어가 느껴진다. 이런 요소를 설계할 때 디자인적으로 어떤 균형이나 원칙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메뉴는 ‘클래식’과 ‘고급스러움’을 기반으로 다각도에서 큐레이션하고 있다. ‘유행을 타지 않고, 시대를 넘어 꾸준히 존중받으며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맛(텍스처, 당도, 에프터)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브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오리지널 아프리카 오브제를 과하지 않게, 적절한 균형 속에서 선택하고 배치해 부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최근 대전에서도 개성 있는 소규모 F&B 브랜드가 활발히 생기고 있다.

지금 시점의 F&B 브랜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대전이라는 도시는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가? 또,

주변에서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F&B 분야에 발을 들인지 아직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뚜렷한 해안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나와 팀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전에서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는 코너스톤 H와 이용노미술관을 추천하고 싶다. 생각이 많을 때 자주 찾는 공간인데, 두 곳 모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많은 이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부기는 탄방동이라는 조용한 동네 속에서 낯선 무드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함께 쌓아가는 공간이다. 강렬한 이름과 부드러운 감각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부기 팀은 여전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캡프로젝트	CAP Project
노토	NOTO
카이스트 미술관	KAIST Art Museum
다다르다	DIFFER/REACH
비호소	BIHOSO

경험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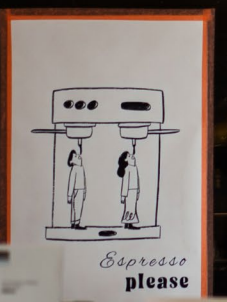
우리는 '경험(經驗)'에 의해 성장하지만, 때때로는 경험에 의해 무뎠어진다. 이미 가봤던 장소, 이미 관람했던 전시는 편안함을 안겨줌과 동시에 마음속 한편에 지루함, 식상함과 같은 정체된 감정을 틔운다. 물론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할 순 없다. 공간과 시간은 제한적이기에 매번 새로운 도파민을 터트려줄 경험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꼭 화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이자 '낯설'이다.

새로운 전시가 열리는 공간은 어떠한가. 이전에 방문한 경험에서 느껴지는 익숙함 속에서 이전 전시와는 다른 새로움이 느껴진다. 같은 일상으로 포장된 공간 속 색다른 비일상의 경험이 우리의 감각을 다시 흔든다.

「경험의 공간」 파트에서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의 걸을 제공하는 공간들을 소개한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자.

EXPERIENCE

**C.A.P
PROJECT**
COFFEE & CULTURE
ART
PLACE & PEOPLE



캡
프로젝트

042

로컬 문화 브랜딩의 아지트, 캡프로젝트

한적한 중리동의 골목 안쪽으로 독특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아늑한 카페, 센치한 루프탑, 리듬이 흐르는 무대 등이 함께 어우러진 이곳은 복합문화공간 캡프로젝트(C.A.P Project)다. 각각 Coffee & Culture, Art, People & Place의 앞글자를 담아, 커피와 문화, 사람과 장소가 모인 곳이다.

기본적으로는 커피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지만, 독서 모임, 보드게임 소모임,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특히 지역 인디 음악인들에게는 공연과 연습,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 속 작은 음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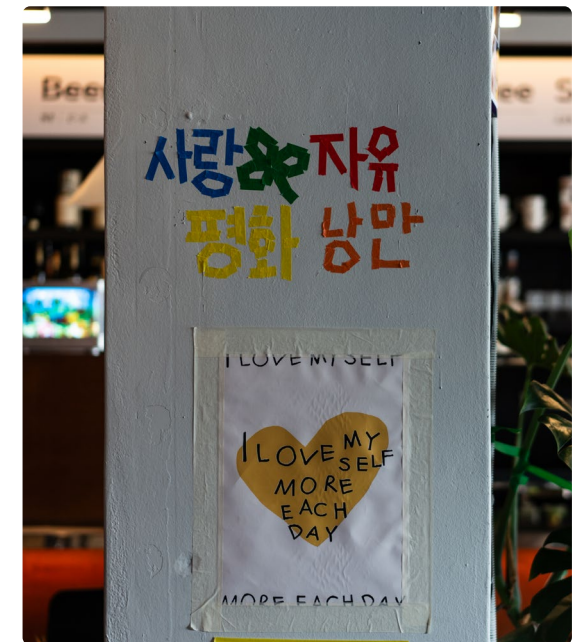
또한 캡프로젝트는 자체 매거진 발간을 통해 로컬 브랜딩과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경험을 넘어, 지역 문화와 예술,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만나게 된다.





042 캠프로젝트

장소 대전 대덕구 중리로53번길 42 캠프로젝트
 운영시간 월-금, 일 12:00 - 21:00, 토 12:00 - 20:00 매주 화요일 휴무
 웹사이트 blog.naver.com/john431611
 비고 인스타그램 @c.a.p_project_





그래픽디자인 생태계의 새로운 활력소— NOTO

선화동 골목 안쪽, 어느 주택들과 다름없어 보이는 한 건물의 안쪽이 조금 특별하다. 감각적인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은 대전 디자인 생태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NOTO(노토)다.

NOTO는 상시 개방된 공간은 아니다. 특정 전시나 행사가 있을 때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는 갤러리지만, 그만큼 특색 있는 전시들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근처 중앙로 지하상가 공실과의 연계 전시도 진행하며 디자인적 영감을 공간 곳곳에 불어넣는다.

또한 NOTO 한편에선 ‘노네임프레스’의 그래픽디자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 로컬 기반의 그래픽디자인 중심 공간으로서, 창작자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 디자인 생태계의 활력을 북돋우고 있다.

043

노토





장소 대전 중구 대종로521번길 32-1 1층

운영시간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SNS 참고

웹사이트 -

비고 인스타그램 - @noto_daejeon





044

KAIST
미술관



지식과 예술의 교차점, KAIST 미술관

과학에 대한 학구열만 넘칠 것 같은 KAIST의 캠퍼스. 그 안에는 지식과 예술이 교차하는 KAIST 미술관이 있다.

KAIST 미술관은 단순한 미술품 전시에만 그치지 않는다. 창작자의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활발한 전시 운영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영감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이다. 특히 전시 공간 자체의 활용성과 디자인적 가치가 높다.

총 3층 규모로 구성된 미술관은 층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층별 메인 전시 이외에도 1층에는 윈도우 갤러리가 마련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해가 진 캠퍼스 내에서 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예술은 또 색다르다. 2층은 개방형 수장고와 미디어홀을 갖추어,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다채로운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KAIST 미술관은 창작자와 관람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장이며, 연구와 실험, 예술적 탐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대학 그 너머의 또 다른 영감의 거점이 된다.



044 KAIST 미술관	
장소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미술관 E9-1
운영시간	월 - 금 10:00 - 17:00, 토 - 일 정기휴무
웹사이트	art.kaist.ac.kr
비고	인스타그램 - @kaist_artmuseum



다다른 서점일기

[영수증]

[매장명] 다다르다 X 도시여행자
 [사업자] 305-32-35481
 [주 소] 대전 중구 충교로73번길 6
 [대표자] 김준태, 박은영
 [TEL] 010-9430-2715
 [매출일] 2019-10-11

[도서명] 로컬의 미래	1	16,000
합계금액		16,000
받을금액		16,000

회원정보

회원번호 00001993 꿈돌이님
 적립포인트 0420 사용포인트 0
 이전포인트 0 가용포인트 0

* 서점일기 | 서점의 일상

1. 평소 좋아하는 사람의 책을 들여놓았다. 그가 가진 삶의 철학과 태도가 많은 이들에게 가닿기 바란다. 누군가의 감정이 타자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만큼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책 판아서 연봉 일 억 원을 번 서점원이 되고 싶다. 책이 유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무언가에 휩쓸리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
3. "모든 기차길들이 등 보이며 사방으로 흘러나갔지. 스무 살이 되길 별러서 경부선을 타고 떠났지. 나는 늘 하나의 작은 강으로 사는 거라고 여겼었지. 때로는 온종일 항해를 흥얼거리고 다녔었지. 강은 돌아오는 일이 없어도 사람은 어쩌면 돌아가지. 대강하고 지친 한 정이로 경부선을 거슬러가자" 생각의 여를 <대전> 중에서
4.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5.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책을 고르고 권하는 '서점원'도 멋진 직업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매니저'에 가깝다고 느꼈다. 짧은 대화로 서로의 삶을 풀어내며 교감하고 있는데, '책'을 통해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책과 서점을 통해 동네마다 즐거운 일이 가득하면 좋겠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삶. 더 나누는 삶을 고민하는 삶. 이것이 도시의 낭만을 위한 삶.
6. 대전, 이 도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일본의 역사, 아픈 과거를 안고 사는 도시. 이주민이 모여 사는 도시. 삶은 여행이나 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모인 도시. 그러나 '우리' 서로 서로 환대하며 살아오. 낯선 여행에서 받았던 마음처럼, 낯선 여행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오늘도 로맨틱 대전. (과거지)

<도시여행자
 경험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서점
 erent, So we can reach each other.



우리는 다 다르고,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어요 다다르다

은행동 거리를 걸다 보면 유리 너머로 책과 사람의 온기가 묻어나는 공간이 보인다. 다다르다는 단순히 책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기획하고 나누는 독립서점이다.

이곳의 중심에는 '계절 서가'가 자리한다. 2개월마다 주제를 정해 서점원들이 선별한 책들을 선보이고, 독자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큐레이션 서가는 단순한 서가를 넘어, 책을 고르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즐거움으로 만든다.

계산대에서 건네받는 영수증에는 '서점 일기'가 담겨 있어, 단순한 거래 기록을 넘어 작지만 특별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더불어 2025년 멤버십 굿즈로 선보인 '절기 노트'는 계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담아낸 아이템이다. 계절 서가와 맞닿아 독자들이 책과 계절을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돕는 이 노트는, 독립서점이 제안하는 큐레이션의 감각을 일상의 기록으로 확장시킨다.

또, 다다르다는 독립출판과 로컬 콘텐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고 독창적인 목소리들이 모여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곳은 매개자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책을 통해 확장되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이곳은 독립서점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았다. 1층의 카페는 방문객들이 책을 펼치고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여유를 제공하며,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다다르다가 서점을 넘어, 머무는 이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감각적 여운을 선사하는 이유다.

다다르다

045






045 다다르다

장소 대전 중구 중교로73번길 6 1층, 2층

운영시간 매일 12:00 - 20:00

웹사이트 blog.naver.com/daejeoncafe

비고 인스타그램 @diffreach




62 경험의 공간 Experience SPOT



63 경험의 공간 Experience SPOT



호소하지 않는 삶, 조건 없는 비호 비호소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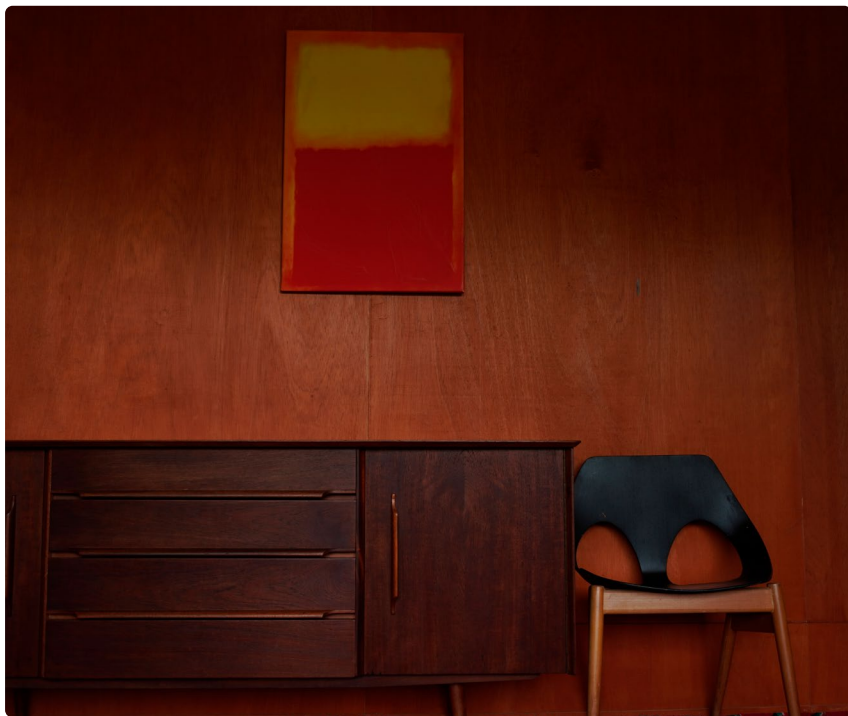
비호소



대사동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 있다. DIT(Do It Together) 방식으로 조성된 비호소는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공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대사동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이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활용되며, 층별로 명확한 디자인 테마가 설정되어 있어 방문객은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평소에는 주로 카페와 와인바로 운영되며 음료를 즐기는 공간이지만, 기획에 따라 전시, 공연이 공존하는 문화적 발견의 장이 된다.

지역 주민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만큼, 공동체의 에너지와 창작적 영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방문객은 이 공간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감각적인 전시와 공연을 마주하며 디자인적 통찰과 예술적 감각을 얻고, 동시에 지역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는 아쉽다면, 숙박까지 가능하니 비호소의 경험을 온전히 체험하며 방문해 보자.



046 비호소

장소 대전 중구 충무로 40 . 지하층,1층,3층

운영시간 매일 11:00 - 24:00

웹사이트 -

비고 인스타그램 @bhoso_official



경험의 공간, 캡프로젝트

interview 박성수
캡프로젝트 대표

도심의 북적임에서 조금 벗어난 대전 중리동에 자리한 캡프로젝트는 두 형제가 함께 만든 문화예술 복합공간이다. 이곳은 카페이자 전시공간이며, 음악과 미술, 사람과 커피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운영자가 말하는 공간의 시작과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험의 의미를 들어본다.

퇴사 후 제주도에서 나는 대화가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직장을 떠난 시점에 다시 예술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서울이 아닌 대전, 그중에서도 중리동을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다.

캡프로젝트는 나와 사촌동생이 함께 시작한 공간이다. 서울에서 각자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 시기가 겹쳤고, 잠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을 때 예전에 함께 음악활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울이 아닌, 사촌동생이 대학을 나온 대전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다. 대전을 처음 접했을 때 중리동의 낮은 주택가가 주는 정감이 마음에 들었다. 이곳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캡프로젝트를 열었다.

캡프로젝트는 카페이자 전시공간이기도 하다. 운영자는 '일상 속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특별함이란 어떤 경험을 뜻하는가?

캡프로젝트는 장르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동시에 카페로서 일상 속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카페 이용자들에게는 일상의 휴식을, 예술 콘텐츠를 접하는 방문자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일상적 경험'이다.

전시나 공연, 매거진 등 다양한 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도가 많은 만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

캡프로젝트에서는 전시, 공연, 강의, 매거진 발간 등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공간의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협업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기보다, 기획 전반을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캡프로젝트를 더욱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공간 곳곳이 음악과 미술, 커피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낯설지만 흥미로운 조합이다. 운영자가 말하는 '익숙해지는 과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캡프로젝트는 음악, 미술, 사람, 커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로 기획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차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시했다. 낯선 공간이 흥미로운 공간으로, 그리고 익숙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곧 우리의 컨셉이다. 여러 영역이 서로의 역할을 하며, 그 경험들이 모여 하나의 캡프로젝트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는가? 대전의 관객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전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공연을 기획할 때, 무대 앞에서 관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즐거웠다고, 다시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안에서는 충분히 즐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대전의 정서를 배웠고, 운영자로서 공간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간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지점이 있었는가? 초창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우리의 취향과 기준을 강하게 드러내던 시기였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방문자가 “공간에 자신의 취향만 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줄어들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후에는 우리의 취향을 덜어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공간을 채우려 했다. 그때부터 캠프 프로젝트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이 되었다.

운영자는 캠프 프로젝트를 ‘형제의 놀이터’라고 표현했다. 중리동이라는 지역이 이 공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캠프 프로젝트는 개척정신 가득한 형제의 놀이터로 남고 싶다. 중리동에서 시작된 다양한 활동이 대전 전역으로 확장되길 바란다. 대전은 흔히 ‘어중간하다’는 말로 표현되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캠프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 대전의 ‘어중간함’을 담은 공간이고 싶다.

캠프 프로젝트는 형제의 취향과 실험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전에서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도시 속 또 하나의 예술적 일상으로 이어진다.



뽕죽집
대전창작센터
치유의 숲
한밭수목원

Eclectic-style House in Daeheung-dong
Daejeon Creative Center
Daejeon Healing Forest
Hanbat Arboretum

시간의 공간

‘시간(時間)’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의미는 모두 남다르다. 상쾌한 공기를 머금은 숲길을 걷는 시간은 나이 지긋한 노인과 발랄한 어린이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며 식물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풍성해지는 공원이 있고, 조금씩 마모된 벽돌과 낡은 창틀이 오히려 세월의 깊이를 드러내는 건물도 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그 흔적을 공간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은 단순히 오래된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기억을 되짚는 매개체가 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일상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자신이 속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발견하게 된다.

「시간의 공간」 파트에서는 대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들을 소개한다. 한 시대를 살아낸 건축과 풍경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을 다시 성찰하게 하는 거점이 된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대전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HISTORY



047

뽕죽집



대전 건축문화와 생활사의 상징, 뽕죽집

대흥동에는 시간을 넘어선 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뽕죽집’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1929년에 지어진 건물로, 대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건축물 중 하나이자 근대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뽕죽집의 독특한 외형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건축의 외관을 결정짓는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 구조이지만, 평면상 원형으로 돌출된 거실 위에는 원뿔형 지붕이 더해져 있다. 이 두 가지 지붕 형태가 결합되면서, ‘뽕죽집’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인상을 완성한다.

실내는 일본 양식을 반영해 ‘다다미방’과 ‘도코노마(일본 건축양식)’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건축디자인에서는 서양식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절충된 독창적인 공간 구성은 1920년대 주택 디자인의 과감함과 세련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독특한 외형뿐 아니라 과거 대전 철도국장의 관사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배경도 지니고 있다. 한때 대전의 건축문화와 생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뽕죽집은, 오늘날에는 사진 촬영 명소로서 그 새로운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047 뽕죽집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

장소 대전 중구 문창로 119-15

운영시간 운영시간 정보 없음

웹사이트 -

비고 -





근대 건축물의 새로운 의미 부여, 대전창작센터

048

대전
창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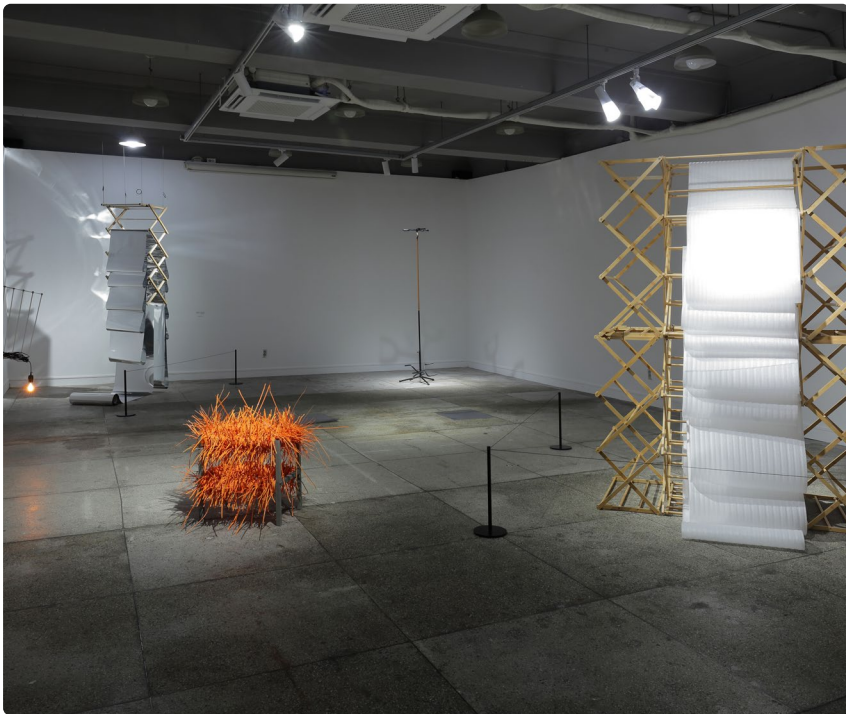


1958년 건립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시대의 흐름을 거쳐 지난 2008년 대전시립미술관 전시관인 대전창작센터로 재탄생했다.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보존하며, 지역 창작과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대전창작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재활용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 공연, 워크숍 등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창작센터는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창작이 만나며, 지역 예술가와 시민 모두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방문객들은 과거와 현재, 지역과 창작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의 시냇바늘을 감는다.






048 대전항작센터

장소 대전 중구 대종로 470

운영시간 매일 10:00 - 18:00, 12:00-13:00 휴게시간,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웹사이트 daejeon.go.kr/dma

비고 인스타그램 @daejeon_museumofart



㉓
전시실 전경 1
© 대전시립미술관
박수연/ 사진: 허태원

㉔
전시실 전경 2
© 대전시립미술관
이유경/ 사진: 조준용

㉕
전시실 전경 3
© 대전시립미술관
최은철/ 사진: 곽동경





대전
치유의 숲

049

숲에서 즐기는 사유와 사색, 치유의 숲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무수동 치유의 숲을 찾아보자. 현대의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산림치유 공간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숲 곳곳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섬세한 디자인 요소가 녹아 있어 편안한 분위기와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걸거나 잠시 앉아 있을 때, 자연과 구조물,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풍경 속에서 깊은 몰입과 평온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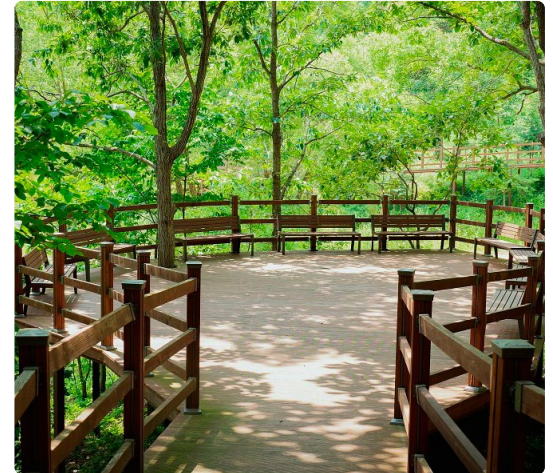
신청을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모두숲길과 운동치유길, 물길따라 걷는길을 자유롭게 걸어도 좋다. 치유의 숲을 걸어보았다면 치유센터에 들려 건강 상태도 체크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단 하나, 치유의 숲의 아쉬운 점을 꼽으려면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049 대전 치유의 숲

장소 대전 중구 운남로37번길 386
 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웹사이트 -
 비고 -





도심 속 싱그러운 녹색 영감, 한발수목원

대전의 중심을 걷다 보면, 도시의 빛과 소음 속에서 여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대전 최대 규모의 공공 조경 사례이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심 속 수목원인 한발수목원이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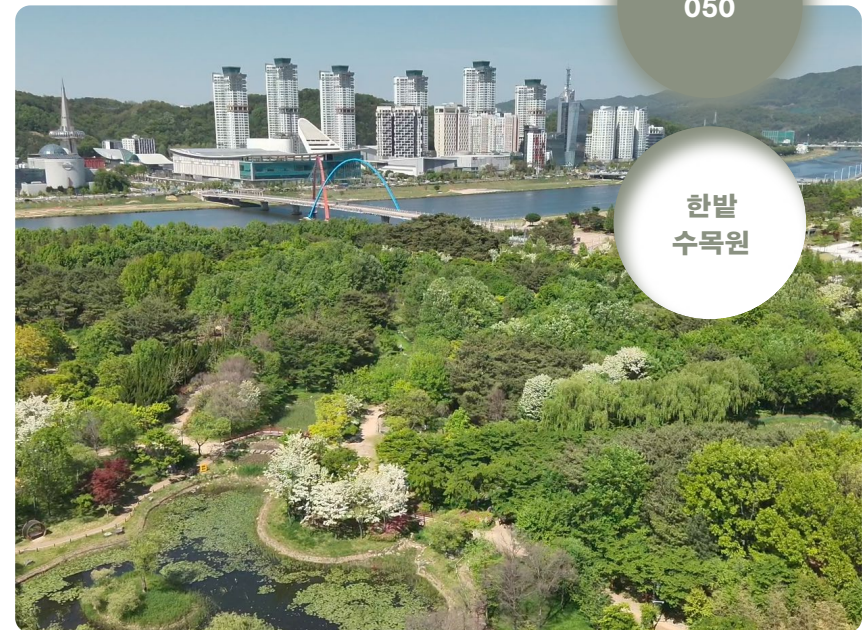
한발수목원의 광활한 공간은 단순한 녹지대가 아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조경과 다양한 식재 패턴,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어우러진 디자인 요소는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된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도시 한복판에서도 디자인적 통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한발수목원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 잡았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산책, 혼자만의 사색,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이곳은 단순한 녹지대를 넘어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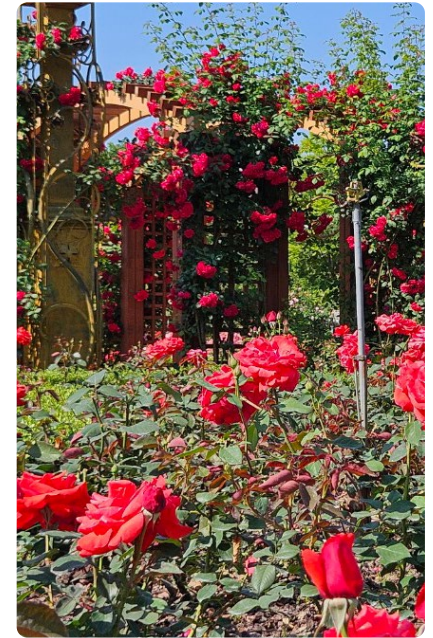
한발
수목원





050 한밭수목원

장소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운영시간 화-일 05:00 - 21: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절기마다 운영상이
웹사이트 daejeon.go.kr/gar/index.do
비고 -



㉠ 2024 봄꽃축제 1

㉡ 장미원 전경 1

㉢ 2024 봄꽃축제 2

㉣ 장미원 전경 2



시간의 공간, 대전창작센터

interview 우리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도시의 시간은 장소 위에 쌓인다. 대전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전창작센터는 그 오랜 시간의 증거이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공간이다. 1950년대 농수산물관리센터로 지어진 건물이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변모하기까지, 이곳은 늘 도시의 중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창작센터의 시간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짚어본다.

대전창작센터는

1950년대 농수산물관리센터로 지어진 근대건축물이다. 오랜 시간 행정시설로 쓰이다가 예술의 터전으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어땠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기억에 남는 전환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전창작센터는 1958년 故 배한구 선생이 설계한 건물로, 20세기 중반 한국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한 뒤 한동안 방치되었지만, 2004년 등록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되며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대전시립미술관이 ‘열린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05년 첫 전시가 열렸고, 이 건물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다. 2008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리 전환이 승인된 후, 대전창작센터는 원도심의 중심에서 실험과 상상의 장으로 기능했다. 이곳은 제도권 미술의 틀을 넘어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허락한 장소로, 대전의 문화적 흐름을 바꾼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행정기관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주택 같은 따뜻한 인상을 준다.

건축적으로 기억에 남는 요소나,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5년 문화재청의 기록화 조사에 따르면 중앙 현관의 아치 구조가 특히 인상적이다. 검정 인조석 물갈기판으로 마감된 아치는 세 단의 계단 위에 자리하고, 위로는 캐노피가 덧붙여 있다. 행정시설이지만 장식적 감각이 느껴지고, 기능과 미감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다.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깊어지고 질감이

풍부해진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다. 농수산물관리센터 시절, 국민의 먹을거리를 다루던 공간이었기에 설계자에게는 ‘집밥 같은 건물’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그 질감 덕분에 계절마다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시간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다.

창작센터가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은 지역 미술계의 큰 전환기였다.

그 시기 대전창작센터의 출범이 지닌 의미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가?

창작센터의 탄생은 단순히 한 공간의 개관이 아니라, 지역 미술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2000년대 초반 젊은 작가들이 활발히 등장하며 미술계 전반이 변화하고 있었고, 대전시립미술관은 이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당시 ‘열린미술관’ 프로젝트는 제도권 미술관이 도시의 현장으로 나오는 첫 시도였다. 미술관이 아닌 원도심의 건물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며, 예술이 지역사회와 직접 관계 맺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실험이 대전창작센터의 시작이자, 도시 속 예술의 가능성을 새롭게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후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역 예술 생태계의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시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도 많았을 것 같다. 건축적 구조가 전시나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물리적인 제약은 분명 있었다. 입구가 좁고 천장이 낮아 대형 설치 작업을 들이기 어렵고, 등록문화재라 구조를 변경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오히려 창의적인 시도의 계기가 되었다. 작가들은 공간의 제약을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간이 작품을 규정하기도 하고, 작품이 공간을 다시 정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전시를 준비하는 매번의 시간 속에서 공간의 가능성을 새로 발견했고, 그것이 창작센터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대전창작센터는 오랜 시간 지역 예술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 공간이 도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가?

창작센터는 동시대 시각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표현 방식을 시도하며, 대전 미술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왔다. 시민에게는 예술을 체험하는 일상의 장소로, 예술가에게는 실험과 협업의 무대로 자리했다. 지역 기반의 창작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리서치형 전시 등이 이어지며 예술이 도시와 함께 호흡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름철이면 건물의 두꺼운 벽 덕분에 서늘한 공기가 유지되어 시민들의 심터가 되기도 했다. 창작센터는 것처럼 일상과 예술, 과거와 현재가 함께 머무는 ‘도시의 시간’이 담긴 공간이었다.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는가?

이 단단한 회색 건물은 한때 곡식 창고였고, 지금은 예술의 창고가 되었다. 언제나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장소였다. 제도권 미술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다른 이름으로 쓰이더라도, 지난 시간의 충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미래의 창작과 기억의 보고로 남길 바란다. 미술관의 모든 실천이 사회에 기여하는 발언이 되길 바라며, 그 정신이 이 건물의 시간 위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대전창작센터는 도시의 역사와 예술의 시간이 겹쳐진 공간이다. 과거의 건축이 현재의 창작을 품고, 다시 미래의 문화로 이어진다. 그 시간의 축적이야말로 이 공간이 품은 가장 깊은 예술의 형태일 것이다.

대덕구

Daedeok-gu

중구

Jung-gu

서구

Seo-gu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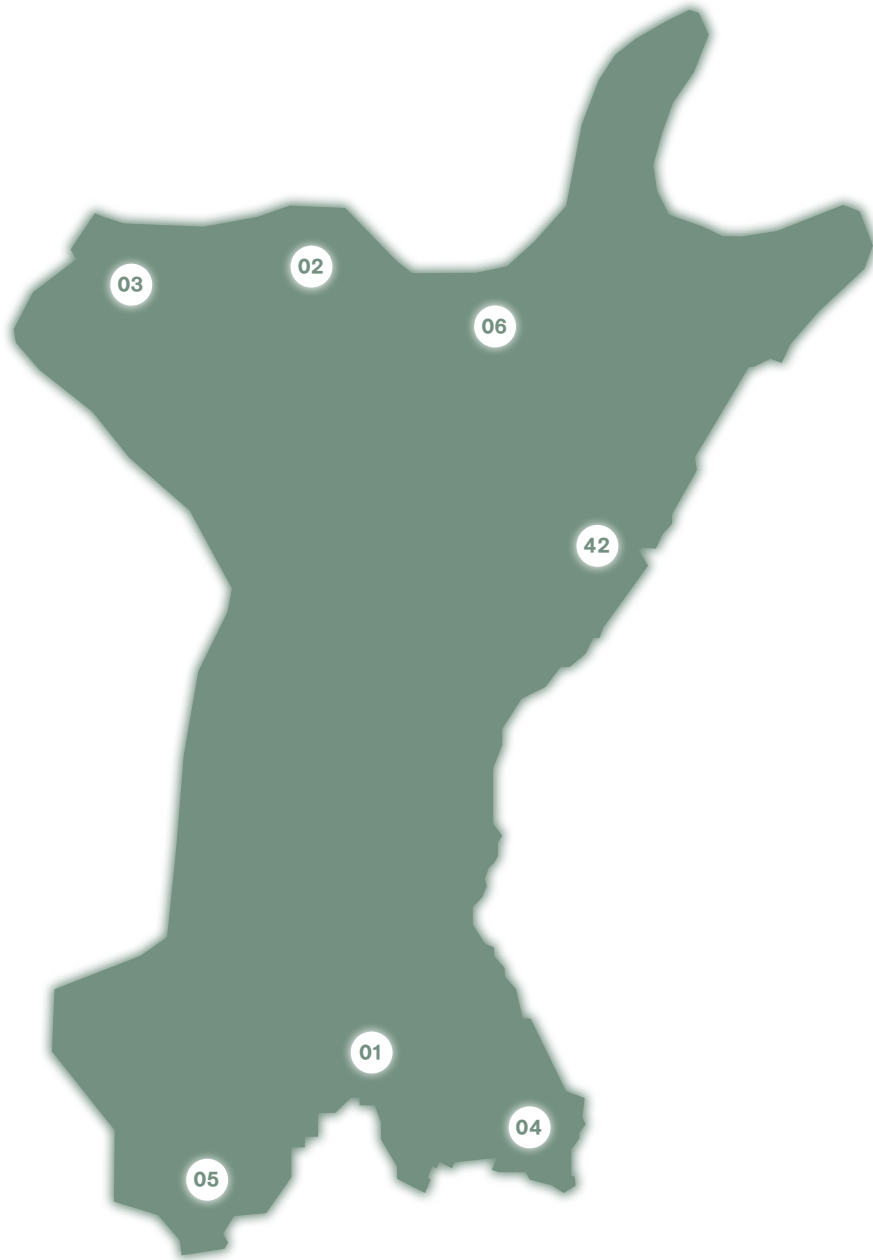
Dong-gu

유성구

Yuseong-gu

APPENDIX

대덕구 Daedeok-gu



01 동춘당

대덕구 동춘당로 80 동춘당



02 을축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81



03 라운지 티

대덕구 대덕대로1585번길
16 4, 5층



04 대전육교

대덕구 비래동



05 한남대 선교사촌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06 두두당

대덕구 대청로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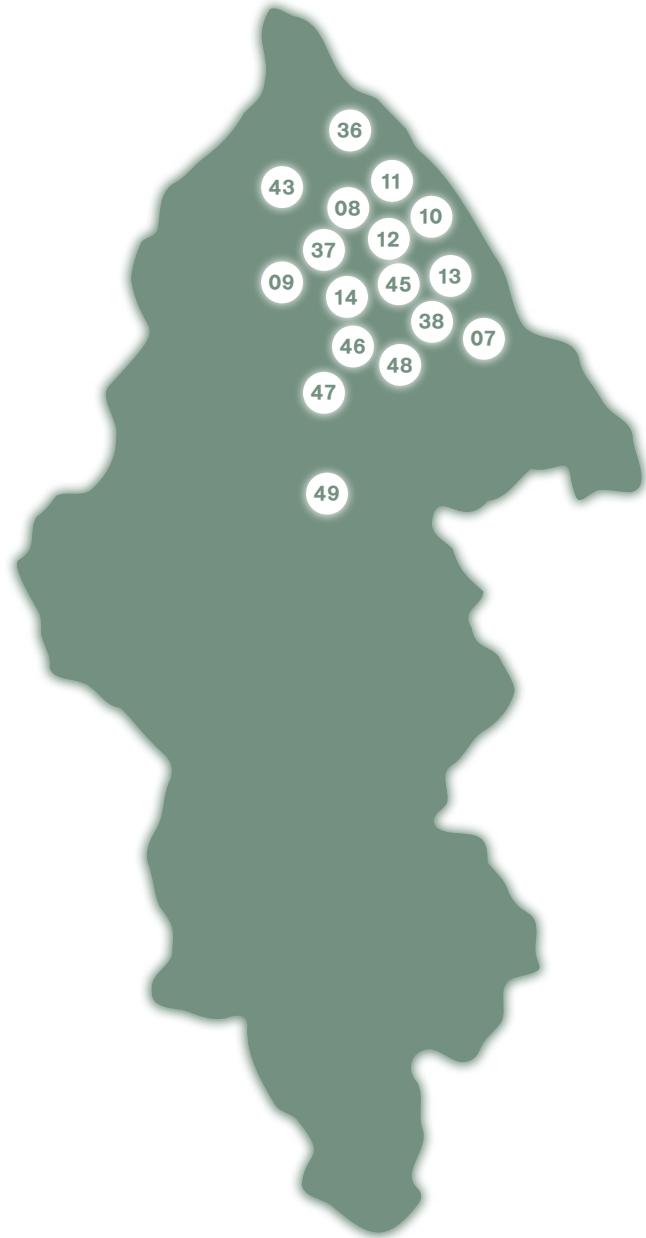


42 캡프로젝트

대덕구 중리로53번길 42



중구 Jung-gu



07 테미오래
중구 보문로205번길 13



08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중구 중앙로 85



09 대전예술가의집
중구 중앙로32



10 확장성
중구 중교로 74



11 커닝
중구 중앙로 132 1층



12 류제
중구 대흥로121번길 44



13 정영복 미술공간
중구 중앙로112번길 29



14 성심당
중구 대흥로480번길 15



36 더 프렐류드 샵
중구 중앙로129번길 30 1층



37 슝피크
중구 중앙로112번길 37 2층



38 처치엔댄스홀
중구 대흥로139번길 38



43 노토
중구 대흥로521번길 32-1



45 다다르다
중구 중교로73번길 6 1층, 2층



46 비호소
중구 충무로 40, 지하층, 1층, 3층



47 뽕죽집
중구 문창로 1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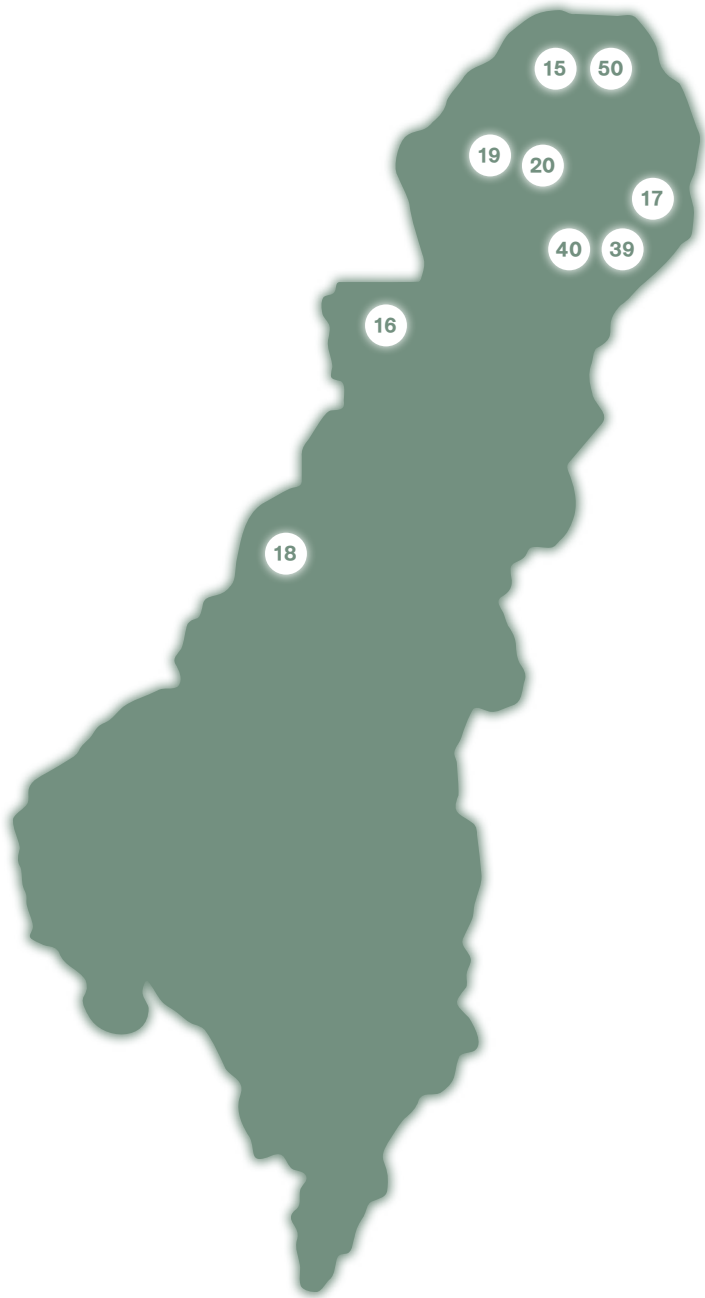
48 대전향락센터
중구 대흥로 470



49 치유의 숲
중구 운남로37번길 386



서구 Seo-gu



15 이응노미술관
대전 서구 둔산대로 157



16 오도르
서구 도안동로 144-34 101호



17 컨사이스
서구 둔산남로 180번길 31



18 루드커피
서구 상보안길 105



19 모티오
서구 갈마역로25번길 17-11
지하 1층



20 갤러리아 타임월드
서구 대덕대로 211



39 흥익커피바
서구 탄방로 78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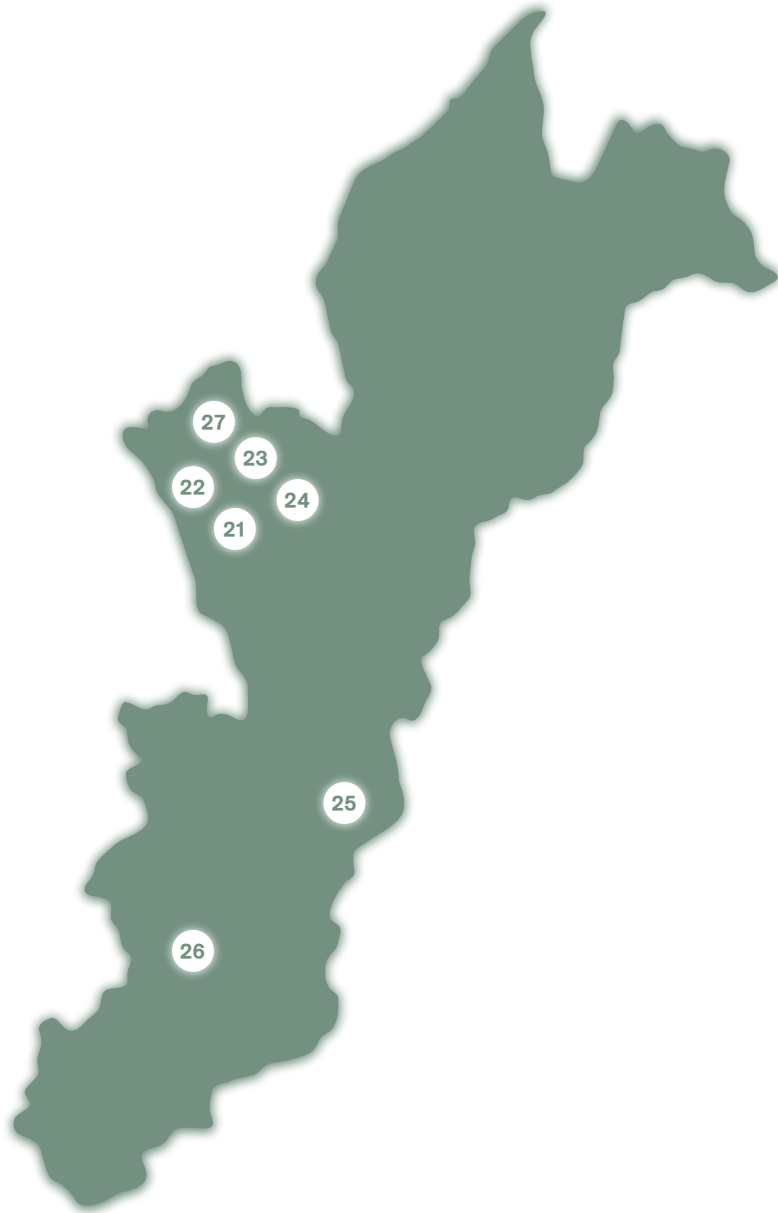
40 부기
서구 문정로 112번길 54 1층



50 한밭수목원
서구 둔산대로 169



동구 Dong-gu



21 헤레디움
동구 대전로 735



22 견우재
동구 대동천좌안5길 19



23 풍류소제
동구 수향길 31



24 소제예찬 1927
동구 수향길 19 관사 16호



25 상소동 산림욕장
동구 산내로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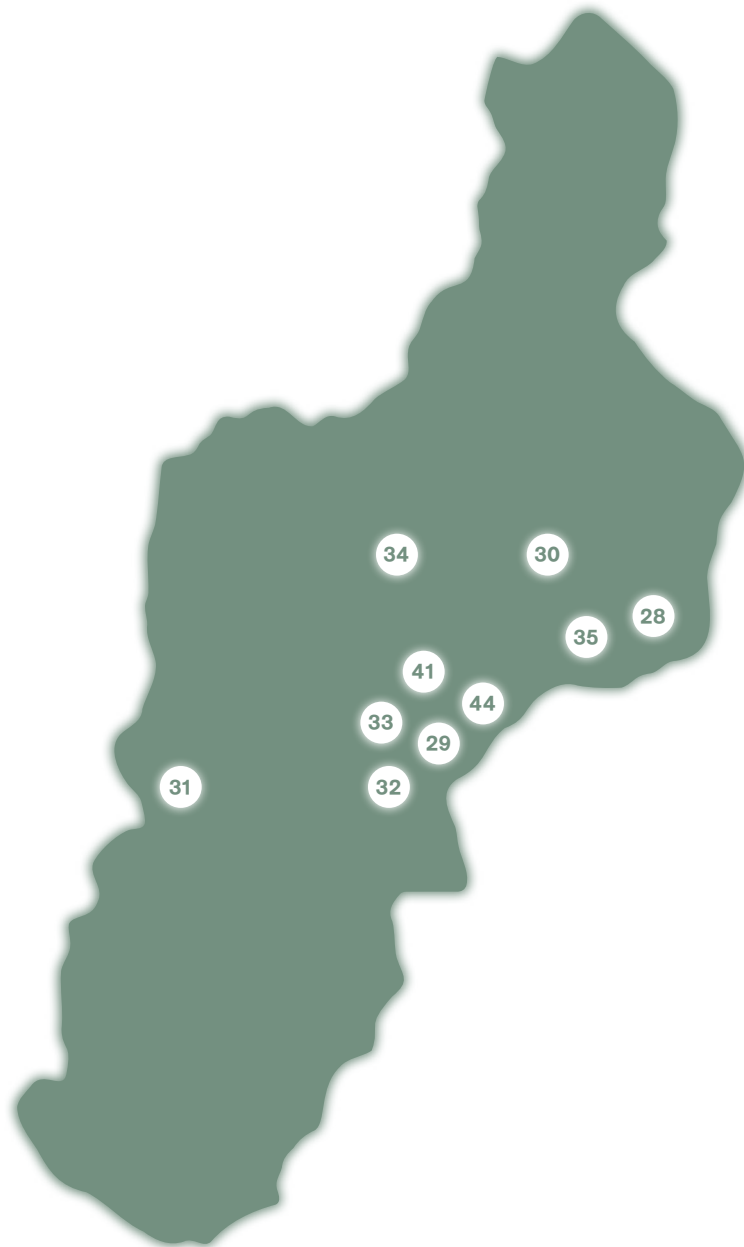
26 만인산 자연 휴양림 숲속의 집
동구 산내로 106



27 여기소제
동구 대동천좌안5길 25



유성구 Yuseong-gu



28 호텔 오노마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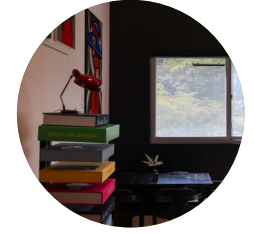
29 에이트

유성구 한밭대로 458



30 공간타라

유성구 대덕대로 572



31 공간테리

유성구 수통골로 9



32 오브페르

유성구 월드컵대로351번길 5



33 커피인터뷰

유성구 한밭대로371번길 25-3



34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유성구 유성대로935번길 50



35 골프존 조이마루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41 사케바 쿠로자루

유성구 대학로163번길 43 1층



44 KAIST 미술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E9-1



대전디자인핫스팟 아카이브

주최 · 주관 대전광역시
(재)대전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ISBN 979-11-985540-3-1







상투

쉬어다가유













